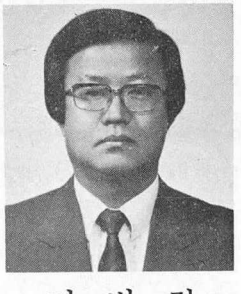
특별기획

자조금제도를 통한 수입대처

자조금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공동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기금이다. 이러한 자조금은 한 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민 병 렬
(미국사료곡물협회)

이백분의 일의 횡포

"돈육통조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판정".

대한양돈협회가 발간하는 금년 1월 10일자 주간 양돈정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그 내용은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급기야는 국내 돼지고기 통조림산업의 가동율을 크게 감소시켰고, 돼지의 농가수취가격 하락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상공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결국 0.5%의 횡포가 인정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1989년에 돼지고기 통조림의 도입량은 전체 돼지고기 소비량의 0.5%에 불과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소세지가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늦어도 1997년까지는 돼지고기 및 그 가공식품의 수입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비율이 소수에서 정수로 더 나아가 두자리수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어떤 모양을 하게 될 것인가?

양돈인의 삶터 스스로 지켜야

지난 1월 15일자의 농수축산신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축산업 육성 포기 안해"라는 제하에 정부의 확고 부동한 축산업 육성의지를 게재했다. 그런데 그 날짜, 그 신문의 다른 면에는 "축산업 존립위해서 생산자가 직접 나서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축산생산자 단체장의 말을 직접 인용, 과거에는 미약하나마 정부가 축산업 육성책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의지마저도 없어진 것 같다고 전제, 앞으로 축산업이 살기 위해서는 생산농가들이 뭉쳐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산자의 노여움 섞인 결의를 보도했다.

사실 다지고 보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꾸준한 정부의 양돈산업 발전정책의 공이 없지 않다. 그리고 군소리 없이 잘 먹어준 소비자의 공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칠전팔기의 곤욕을 몇번이나 치르면서도 굽히지 않은 우리 양돈인의 피땀어린 노고를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개방화·자유화의 거센 파도가 우리 양돈산업이 쌓아놓은 방파제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공들여 쌓아 놓은 방파제가 좀 무너진다 하자.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국기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소비자는 국내산 돼지고기 대신 수입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는 불편(?)만 겪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 생산자에게는 매우 아픈, 어쩌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잘못이 없다면 어렵사리 쌓아 올린 방파제를 지키기 위해 누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해진다.

그는 곧 양돈산업의 주인인 생산자다. 물론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양돈인이 딛고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로 생산자를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양돈인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결국 양돈인의 삶터는 양돈인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10kg정도다. 이웃 일본의 17kg에나 대만의 35kg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앞으로 상당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계속 늘어나는 우리 시장을 국제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것이다. 우리 양돈인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 자조금제도는 힘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다.

자조금 모아 당면과제 해결을

넓은 의미의 자조금이란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여러 모양의 자조적 재원을 말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 축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자조금은 좁은 의미의 것으로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령이나 이익집단의 자체적인 결의에 근거하여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모금되어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인 기금을 뜻한다. 즉, 자조금은 그 집단의 구성원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공동 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기금이다. 이러한 자조금은 한 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최근 미국 축산부문의 각종 자조금 사용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조금이 마치 축산물의 소비촉진 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요즈음에는 미

자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돼지고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수집, 연구 및 교육사업이다. 축산선진국이 이미 개발한 생산기법을 수립하여 그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국의 각종 자조금이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 예로서 1987년도 미국의 양돈분야 자조금의 77.6%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지출되었으며, 생산자와 양돈산업의 의사소통에 7.8%, 생산요소 보조사업에 5.2%, 그리고 생산 기술연구 및 교육사업에 소요된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3.9%에 불과했다. 이는 요즘 미국 양돈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돼지고기 소비의 침체이기 때문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생산, 가공, 유통효율을 성취한 오늘날 미국의 양돈산업의 경우는 자조금을 소비촉진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자조금을 낸 양돈인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아이오와주에서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67년 당시에는 거출된 자조금의 대부분이 돼지의 영양 및 사양관리, 사료배합기술 등 돼지고기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및 교육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렇듯 자조금은 당해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해야 할 일까지 자조금이 맡아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대한양돈협회가 대다수 회원의 지지를 얻어 축산업 자조금 법안을 작성하고, 이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개방화·자유화의 거센 물결과 함께 격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자조금 제도의 실현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조금이라는 형태로 모아진 힘으로 한국의 양돈산업을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돈산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생산성이 낮다는 것이다. 자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돼지고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수집, 연구 및 교육사업이다. 축산선진국이 이미 개발한 생산기법을 수립하여 그중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미진한 것은 국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개발하도록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산기술은 단순히 사료효율을 높이거나 증체율을 높여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하는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또한 위생적으로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기술체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소비자의 기호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 개발된 생산기술을 양돈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양돈업이 안고 있는 문제중에는 가공 원료육의 생산비가 높고 질이 낮다는 것과 수출을 위한 규격돈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있다. 품종의 선택이나 교잡방법 등에서부터 사양관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생산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해문제와 관련된 분뇨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여 오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며, 항생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동물약품의 잔류문제에 대한 생산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다양한 돼지고기 가공품의 개발이다. 현재는 가공제품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나, 소비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소비도 또한 같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식생활의 변천에 대응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반찬쪽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는 돼지고기가 주식이 될 수 있는 가공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돼지고기 생산 및 가공과정의 효율개선으로 생산비가 낮아진 만큼 소비자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도록 양돈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자조금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생산효율 증대를 위한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조금을 써서 돼지고기 유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가공제품의 질적인 우수성, 안정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촉진 활동과 아울러 시장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생산자에게 소비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므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조금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에 성공하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정책, 산업구조 등을 연구하여 우리산업에 적용토록 함과 아울러, 수출시장(수입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수출장벽을 뛰어넘어 효율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또한 자조금제도의 도입으로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도 양돈자조금을 이용, 세계돈육박람회(World Pork Expo.)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효율증대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장벽을 검토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출잠재력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는 대규모의 돼지고기 수출시장이 있다. 얼리지 않고도 수송이 가능한 일본은 우리가 생산하는 전량을 처분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시장이다.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를 조사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그 나라의 위생기준을 포함한 수입제도를 빠짐없이 연구해서 효율적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에 큰 보탬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한국양돈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자조금이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양돈산업 육성정책을 입안하는데 관련분야 전문가의 중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조금제도의 도입은 양돈인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서 양돈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아진 힘이 된다. 수입개방은 분명히 양돈산업이 당면한 심각한 문제다. 자조금은 이러한 난제를 지혜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낼 것이다. 養豚